

남·여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요인

김혜온* · 정정숙**

초 록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남·여 가출경험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요인, 학교환경요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이들 요인들이 남·여 집단의 가정복귀 여부를 예측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전국 42개소 쉼터에 거주하는 재가출 경험 청소년 261명과 12개 중·고등학교 학생 중 2회 이상 가출경험이 있으나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 28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정복귀 여부와 성별을 기준으로 이원변량분석과 χ^2 검정을 통해 비교를 하였다. 또한 이들 요인들의 가정복귀 여부를 예측하는 정도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정복귀 여부에 따라서는 공격성, 비행경험, 가족구조,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의 애정과 방임, 아버지의 학대, 부모와의 대화 빈도, 그리고 또래관계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성별에 따라서는 우울감, 충동성, 비행경험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여 가출경험 청소년들의 가정복귀 여부에 대한 예측력을 비교한 결과 결손가정과 공격성은 가정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가정복귀 여부에 대한 예측력의 차이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 나타났는데, 남자 가출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방임이 가정복귀 촉진요인으로 여자 가출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학대가 가정복귀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교우관계는 가정복귀의 촉진요인으로 나타난 한편,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비행경험이 가정복귀 저해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와의 대화는 가정복귀 촉진요인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가정환경요인의 예측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남·여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요인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hokim@mokpo.ac.kr

** 목포유달단기여자청소년 쉼터 소장

I. 서 론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가출경험률은 2012년 12.2%로서 전년 대비 2%를 상회하고 있으며 조사가 시작된 2002년에 비하면 무려 4.7%가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가출청소년의 규모 문제 외에도 근래에 들어 청소년 가출 양상이 반복화, 장기화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가출기간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첫 가출의 경우 2007년의 경우 평균 11.6일이었으나 2011년에는 31.6일로 증가하였으며 2회 이상 가출한 경우에는 평균 18.4일에서 33.3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가출을 감행한 후 가출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위험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가출기간과 가출빈도 증가로 설명될 수 있는 청소년 가출의 만성화는 학업중단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박탈, 직업능력 상실, 그리고 이로 인한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가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차명호, 양정국과 정경용(2010)에 의하면 반복적 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상무(2012)는 만성가출 집단이 가장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순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불안정한 업종에서 일하며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각종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히거나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홍봉선, 남미애, 2010).

이와 같은 현상은 가출청소년들에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좌절과 고통을 야기하는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미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출청소년들을 이러한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히 충동적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여 가출경험 청소년들의 가정복귀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가출청소년들이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실천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 가출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영역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중 가출경험에 관한 연구는 주로 비가출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을 비교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특징을 파악하는 시도를 한다(김동기, 홍세희, 2007; 오승환, 2010). 가출청소년 내의 집단 간 비교를 하는 연구에는 가출빈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구와 가출기간을 기준으로 장단기 가출청소년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다(백혜정, 방은령, 2009; 이상무, 남성희, 2012; 홍세희, 노연경, 박민선, 2010). 이 외에도 청소년 가출의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예방책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청소년 가출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출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구별하여 탐색한다. 개인적 요인에는 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비행특성이 포함된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문재우, 2012; 홍세희 등, 2010). 이 중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출충동은 여자청소년들이 더 많이 느끼는 반면 가출경험은 남자청소년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환, 2010; 문재우, 2012).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도 여자청소년들에게서는 남자청소년들과는 달리 폭력·학대 피해가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이해경, 2011).

심리적 특성으로는 불안, 우울, 공격성, 충동성, 자아존중감, 통제성 등이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되었다(McCarthy & Thompson, 2010; Yoder, Hoyt & Whitbeck, 1998). 국내 연구들에서도 우울과 불안이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문재우, 2012; 오승환, 2010). 한상철(2000)도 가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충동성도 가출요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충동성 조절과 가출충동이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미경, 이경남, 2009; 이종성, 곽영숙, 2001). 한편 자아존중감은 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 및 통제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가출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우울증, 폭력이나 절도 등과 같은 문제 행동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Davey, Eaker & Walters, 2003).

비행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비행경험의 유무가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주동범과 임성택(2009)의 연구에서

는 흡연, 음주, 절도, 폭력, 성범죄 등과 같은 비행이 청소년 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이종화, 김경희, 김희영과 정혜경(2006)은 흡연, 음주, 음란물접촉, 성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들의 가출비율이 그렇지 않은 여자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고 하였다. 이상무와 남성희(2012)도 비행경험과 가출빈도 증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해경(2011)은 비행의 종류를 세분하여 청소년 가출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남·여 청소년 모두에게 음주나 흡연, 무단결석과 같은 지위비행이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고 이 외의 비행으로는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낙태, 성매매, 그 다음으로 폭력과 절도와 같은 범죄성 비행 등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임신, 낙태, 범죄성 비행, 성폭력 등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가정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색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가족구조에 대한 탐색 즉 양친가족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고(여성가족부, 2010; Thompson & Pillai, 2006), 가정환경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가족의 지지,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상무, 남성희, 2012; 이종화 등, 2006; Slesnick & Prestopnik, 2004; Thompson, Kost & Pollio, 2003), 부모와의 갈등(박명숙, 2006; 한상철, 2008) 등이 탐색되었다. 오승환(2010)은 가족요인으로 가족지지와 부모학대를 들고 있으며, 문재우(2012)도 부모학대 및 부모방임이 높을수록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이 높은 반면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가족관련 요인으로 가족의 긍정적 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통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Hartos, Eitel, Haynie & Simons-orton, 2000). 한편 가정 경제수준도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경우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보고되었다(Thompson et al., 2003).

또 다른 환경요인으로 학교요인을 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라는 점에서 학교환경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환경 요인으로는 체벌, 학업성적과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분위기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박명숙, 2006; 오승환, 2010; Davey et al., 2003). 이 중 교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좋지 않은 교사-학생관계는 청소년들의 가출요인으로 지목된 반면에(박명숙, 2006),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우,

2012). 청소년들의 학교분위기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rtos et al., 2000). 친구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친구관계는 청소년 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에(주동범, 임성택, 2009), 많은 연구에서 또래의 부정적 압력, 비행또래 접촉, 비행유대 등이 가출충동이나 경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었다(박민선, 2008; 이종화 등, 2006; 차명호 등, 2010). 한편 오승환(2010)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문제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을 때 친구의 영향은 가출충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가출충동을 적게 느끼거나 가출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지(2005)의 연구에서도 친구의 지지가 가출청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친구관계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데,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친구로부터 압력 혹은 지지를 받는가에 따라서 친구와의 관계는 청소년가출의 위험요인이 될 수도, 보호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가출청소년들의 특성분석이나 가출동기와 가출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분석대상에 있어서도 쉽터에 거주하는 가출청소년만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미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 가출 양상에 있어 가출의 반복화, 장기화로 다양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으로의 조기복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질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Thompson, Zittel-Palamara and Maccio(2004)도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정복귀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겐 연령, 대인관계기술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가정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외국에서는 가출 당시 연령이 높으면 귀가를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된 반면에(Milburn, 2007) 국내에서는 가출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귀가를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 모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방은령, 2003). 또한 대인관계기술이 높은 경우 가출 후에 다른 가출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Johnson, Whitbeck & Hoyt, 2005). 가출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경우나 약물, 성문제와 관련된 비행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 et al., 2003). 이 외에도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가족구조와 경제적 여건이 탐색되었다(Dekel, Peled & Spiro, 2003; Thompson et al., 2003). 그 결과 해체가정이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대나 방임과 같은 역기능적인 양육태도가 가출청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Nebbitt, House, Thompson & Polloi, 2007).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귀가요인을 분석한 질적연구(방은령, 2003; 이현지, 2005)에서 가출 후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과 친구나 교사, 상담원 등과 같은 지지체계가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이들 연구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출경험에 대한 회고 내용이 분석되었고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복귀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탐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편 단기쉼터에 입소한 남자 가출청소년들의 귀가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김은영과 송민경(2009)은 가출청소년의 학업상태, 대인관계기술,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족구조, 가출동기, 가출횟수, 쉼터입소경로가 가정복귀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즉 자퇴상태이고 대인관계기술이 낮을수록,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귀가 가능성이 높고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가출, 해체가정의 경우, 가출기간이 길수록, 기관의뢰에 의해 입소할 경우 귀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퇴상태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때문에 오히려 귀가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단기쉼터의 사례관리 자료에만 의존하였다는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 가출의 문제는 가출을 일으키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가출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접근방법의 모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에 대입하여 본다면 위험요인은 가정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호요인은 반대로 가정복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

다.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청소년 가출에 개인, 가정, 학교환경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서도 많은 연구들에서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가출의 위험요인 즉 개인적 요인에서는 우울, 충동성,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비행경험 등, 가정환경 요인에서는 가족구조, 경제적 요인 외에도 부모의 학대와 방임과 같은 역기능적인 양육태도 등, 그리고 학교환경 요인으로는 또래의 일탈과 압력, 학교의 통제 등을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가출청소년의 보호요인으로 확인된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지원이나 부모와의 대화, 그리고 긍정적인 또래의 영향과 교사와의 관계는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들을 경험연구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경험이 있으나 가정으로 복귀한 남·여 청소년들과 현재 가출상태인 청소년들을 비교함으로써 가정복귀를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청소년가출에 있어 일회성 가출이 아니라 반복적인 가출을 하는 청소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회 이상 가출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적, 가정환경, 그리고 학교환경요인과 가정복귀와의 관계를 탐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복귀요인의 성별에 의한 차이를 분석하려는 이유는 선행연구들에서 가출행동에 성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문재우, 2012; 이해경, 2011), 가정복귀에서의 성차이도 탐색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청소년 가출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2회 이상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가정으로 복귀한 집단과 쉼터에 머무르는 집단의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요인, 학교환경요인에서의 차이는 어떠한가? 이는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2회 이상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요인, 학교환경요인의 가정복귀 여부에 대한 예측력은 어떠한가?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4~5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남의 중·소도시의 12개 중·고등학교 학생 2,51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하게 한 후 2,375부를 수거하였다. 컴퓨터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설문지 총 300부를 각 컴퓨터 우편으로 보내 1~2주일 후에 응답된 설문지 267부를 회수하였다. 전국에 있는 총 81개 컴퓨터 중 설문에 참여한 컴퓨터는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42개소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회 이상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총 406명이며 이들의 성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대상 중 남자청소년은 199명이었으며, 여자청소년은 207명이었다. 이들 중 부모(친부모, 편부모, 계부모 포함), 조부모와 같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은 166명이었고 현재 가출 중이어서 컴퓨터에 머무르는 청소년은 240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40.9%와 59.1%에 해당된다. 한편 복귀집단의 보호자에 따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124명(74.5%), 편부 8명(4.8%), 편모 13명(7.8%), 친부+계모 9명(5.4%), 친모+계부 2명(1.2%), 조부모 8명(4.8%), 친척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명(1.2%)이었으며, 따라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컴퓨터에 머무르는 청소년들은 가정복귀 집단에서 제외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

구분	남		여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가정복귀	84	42.2	82	39.6	166	40.9
컴퓨터	115	57.8	125	60.4	240	59.1
전체	199	100	207	100	406	100

2. 측정도구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성별, 나이, 가정 복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동거인에 대한 문항이 제시되었고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요인, 학교환경요인들에 관해 탐색하기 위한 문항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 중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우울감, 충동성, 공격성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의 5문항을 사용하였고(Robins, Hendin & Trzesniewski, 2001 재인용)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4이었다. 우울감은 이애령(2004)의 척도 중 7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2이었다.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윤정(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4였다. 공격성 척도는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정·보완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8이었다. 심리적 요인 측정 문항들은 모두 4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이 부여되었다.

청소년들의 비행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행경험의 여부를 묻는 9개의 문항을 Varimax 직각회전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방법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누적 설명변량 57.1%의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음주나 흡연, 야한 동영상 시청과 같이 청소년의 지위에서 일탈된 행동 즉 지위비행(status delinquency)에 속하는 경험들로 구성되었고(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4), 두 번째 요인은 금품갈취, 절도, 폭력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가해성 비행이었고, 마지막 요인은 성경험, 성추행폭행, 임신과 같이 성문제와 관련된 비행이었다. 이들 척도의 점수는 0점에서 3점의 분포를 이루며 Cronbach's α 값은 각각 .70, .77, 그리고 .50이었다.

2) 가정환경요인

가정환경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가족의 구조와 가정경제 상태, 부모와의 대화빈도를 묻는 질문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묻는 척도가 사용되었다. 부모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1999)이 개발한 척도 중 애정 6문항, 학대 6문항, 과잉간섭 6문항, 방임 5문항 등 4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23문항이 사용되었고 이들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값은 .77에서 .91 사이에 분포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3) 학교환경요인

학교환경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우관계, 교사, 학교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교우관계 척도는 교내 친구와의 결속과 관련된 성향을 측정하고 총 4문항이며 교사와 학교분위기에 대한 지각 척도는 각 3문항으로 안창규, 문선화와 진윤식(1995)의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69, .84, .68이고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3. 자료의 처리

가정복귀 여부와 성별에 따른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학교환경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가정환경요인 중 가족구조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차이는 χ^2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변인들의 가정복귀 여부에 대한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Win 21.0 통계분석 Package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적 요인 중 심리적 요인에서는 복귀여부에 따라 공격성에서만 차이를 보여서 가정복귀를 한 청소년들이 현재 가출 중이면서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우울감과 충동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여자집단이 남자집단에 비하여 우울감과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복귀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비행경험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가해성 비행과 성 관련 비행에서는 복귀여부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그리고 남자청소년들의 비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복귀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성별과 가정복귀 여부에 따른 개인적 요인의 비교

구분	복귀		쉼터		전체		F		
	M	SD	M	SD	M	SD			
자아 존중감	남	2.91	.63	2.82	.66	2.86	.64	성별	3.35
	여	2.72	.65	2.70	.68	2.75	.68	복귀여부	.05
	전체	2.81	.64	2.80	.68	2.80	.66	성별×복귀여부	1.04
우울감	남	2.21	.72	2.38	.72	2.31	.72	성별	17.93***
	여	2.64	.72	2.58	.79	2.61	.76	복귀여부	.56
	전체	2.42	.75	2.49	.76	2.46	.75	성별×복귀여부	2.36
충동성	남	2.85	.64	2.80	.62	2.82	.63	성별	6.81**
	여	3.02	.70	2.97	.65	2.99	.67	복귀여부	.56
	전체	2.94	.76	2.89	.64	2.91	.65	성별×복귀여부	.00
공격성	남	2.32	.67	2.43	.70	2.38	.69	성별	.97
	여	2.21	.60	2.41	.68	2.33	.66	복귀여부	5.29*
	전체	2.26	.63	2.42	.69	2.35	.67	성별×복귀여부	.50
지위 비행	남	1.91	1.18	2.01	.85	1.97	1.00	성별	3.79
	여	1.80	.98	1.68	.93	1.73	.95	복귀여부	.02
	전체	1.85	1.08	1.84	.91	1.85	.99	성별×복귀여부	2.03
가해성 비행	남	1.01	.99	1.47	.98	1.26	.98	성별	11.03**
	여	1.83	.94	.86	.92	.84	.93	복귀여부	4.80*
	전체	.92	.96	1.15	.96	1.06	.96	성별×복귀여부	3.54
성 관련 비행	남	.32	.33	.46	.34	.40	.34	성별	4.36*
	여	.16	.29	.37	.44	.28	.36	복귀여부	8.81**
	전체	.24	.31	.41	.39	.34	.35	성별×복귀여부	.52

* $p < .05$, ** $p < .01$, *** $p < .001$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귀 청소년들이 쉼터 청소년들에 비하여 아버지의 애정과 어머니의 애정에 대하여 더 높게 지각하고 부모와 대화빈도도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에, 아버지·어머니의 방임, 그리고 아버지의 학대의 경우는 반대로 쉼터 청소년들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과 가정복귀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아버지의 학대와 방임에서만 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복귀집단과 쉼터집단에서 아버지 학대($F=.24, p>.05$)와 아버지 방임($F=1.93, p>.05$)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복귀집단보다 쉼터집단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학대하거나($F=11.27, p<.05$) 방임한다고($F=9.99, p<.05$) 지각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표 3
성별과 가정복귀 여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의 비교

구분	복귀		쉼터		전체		F		
	M	SD	M	SD	M	SD			
아버지 애정	남	2.51	.87	1.95	.85	2.21	.90	성별	.01
	여	2.46	.89	2.02	.89	2.20	.89	복귀여부	29.81***
	전체	2.49	.87	1.99	.90	2.21	.91	성별×복귀여부	.51
아버지 학대	남	2.26	.89	2.31	1.02	2.28	.96	성별	1.58
	여	2.15	.86	2.68	1.08	2.46	1.02	복귀여부	8.13**
	전체	2.21	.88	2.50	1.06	2.38	.99	성별×복귀여부	5.19*
아버지 양육태도	남	2.42	.79	2.36	.92	2.39	.85	성별	.54
	여	2.26	.70	2.38	.86	2.34	.83	복귀여부	.78
	전체	2.35	.86	2.37	.89	2.36	.86	성별×복귀여부	.31
아버지 방임	남	2.19	.76	2.29	.82	2.24	.80	성별	3.56
	여	2.13	.77	2.54	.84	2.38	.80	복귀여부	11.47**
	전체	2.10	.76	2.40	.83	2.27	.80	성별×복귀여부	4.58*

구분	복귀		쉼터		전체		F		
	M	SD	M	SD	M	SD			
어머니 애정	남	2.76	.84	2.13	.95	2.43	.94	성별	.48
	여	2.67	.85	2.09	.90	2.33	.93	복귀여부	40.33***
	전체	2.76	.84	2.11	.93	2.38	.94	성별×복귀여부	.06
어 머 니 학대	남	1.95	.89	2.05	.97	1.95	.86	성별	.08
	여	1.91	.69	1.95	.97	1.99	.87	복귀여부	.64
	전체	1.93	.76	2.00	.93	1.97	.86	성별×복귀여부	.50
어 머 니 태 도	남	2.43	.84	2.16	.88	2.28	.87	성별	.55
	여	2.39	.71	2.33	.82	2.35	.77	복귀여부	3.67
	전체	2.41	.78	2.25	.85	2.32	.82	성별×복귀여부	1.33
어 머 니 방 임	남	1.90	.71	2.11	.86	2.01	.80	성별	3.64
	여	1.99	.64	2.35	.80	2.20	.74	복귀여부	11.69***
	전체	1.94	.67	2.23	.83	2.10	.76	성별×복귀여부	.75
부 모 와 의 대 화	남	3.02	.93	2.75	.95	2.95	.93	성별	.183
	여	3.26	.78	2.62	.75	3.06	.83	복귀여부	13.17***
	전체	3.14	.86	2.68	.84	3.01	.88	성별×복귀여부	2.30

가족구조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구조에 있어 가정으로 복귀한 집단과 쉼터에 머무르는 집단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복귀한 집단의 경우 양친가정 출신이 73.8%였지만 쉼터집단의 단 24.2% 만이 양친가정 출신이고, 결손가정 출신은 75.8%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서 남자집단보다 여자집단에서 결손가정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가출경험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복귀한 집단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4.2%였으나 쉼터에 머무르는 집단은 55.5%에 달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성별과 가정복귀 여부에 따른 가족구조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

구분	복귀		쉼터		전체		X ²			
	N	%	N	%	N	%				
가족 구조	남	양친부모	68	81.0	31	27.9	99	50.8	5.30*	
		결손가정	16	19.0	80	72.1	96	49.2		
		전체	84	100	111	100	195	100		
	여	양친부모	53	66.3	24	20.7	77	39.3		
		결손가정	27	33.8	92	79.3	119	60.7		
		전체	80	100	116	100	196	100		
	전체	양친부모	121	73.8	55	24.2	176	45.0		94.45***
		결손가정	43	26.2	172	75.8	215	55.0		
		전체	164	100	227	100	391	1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남	하	20	23.8	61	54.0	81	41.1	.05	
		중상	64	76.2	52	46.0	116	58.9		
		전체	84	100	113	100	197	100		
	여	하	20	24.7	71	56.8	91	44.2		
		중상	61	75.3	54	43.2	115	55.8		
		전체	81	100	125	100	206	100		
	전체	하	40	24.2	132	55.5	172	42.7		38.82***
		중상	125	75.8	106	44.5	231	57.3		
		전체	165	100	238	100	403	100		

* $p < .05$, *** $p < .001$

학교환경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이원변량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우관계와 학교분위기에 대한 지각에서 가정복귀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으로 복귀한 집단이 쉼터집단에 비하여 교우들과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며 학교분위기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환경요인에 대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상호작용효과는 교우관계에서만 나타났는데, 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복귀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F = .02, p > .05$), 남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복귀집단이 교우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1.25, p < .01$).

표 5
성별과 가정복귀 여부에 따른 학교환경요인의 비교

구분	복귀		쉽터		전체		F		
	M	SD	M	SD	M	SD			
교우관계	남	2.61	.57	2.31	.67	2.44	.64	성별	.37
	여	2.40	.63	2.44	.64	2.42	.63	복귀쉽터	4.19*
	전체	2.51	.60	2.38	.66	2.43	.64	성별×복귀쉽터	6.88**
교사에 대한 지각	남	2.32	.75	2.35	.79	2.33	.78	성별	2.23
	여	2.41	.80	2.47	.84	2.42	.82	복귀여부	3.03
	전체	2.37	.78	2.41	.81	2.36	.80	성별×복귀여부	.78
학교 분위기	남	2.31	.81	2.20	.81	2.25	.81	성별	.31
	여	2.31	.65	2.11	.77	2.19	.73	복귀여부	3.96*
	전체	2.31	.65	2.15	.78	2.22	.77	성별×복귀여부	.37

* $p < .05$, ** $p < .01$

남·여 가출경험 청소년들의 가정복귀에 대한 예측 변인을 탐색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해 개인, 가정 및 학교환경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를 1로, 쉽터에 머무르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청소년 집단에서 1단계에 개인적 요인들을 투입하여 가정으로의 복귀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을 검정한 결과, χ^2 값이 12.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정환경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예측력을 검정하였을 때 1단계 모형의 χ^2 값에 59.97이 더해졌으며 이 변화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이었다. 또한 이에 학교환경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예측력을 검정하였을 때 2단계 모형의 χ^2 값에 10.37이 더해졌으며 이 변화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모든 변인을 투입한 3단계 모형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80.5% 정확도로 복귀집단과 쉽터집단을 구분할 수 있었고 Nagelkerke R^2 값은 .55였다.

여자청소년 집단에서는 1단계 모형의 χ^2 값은 16.15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정환경요인을 추가하였을 때 χ^2 값이 84.06으로 $p <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력을 지니고 있었다. 3단계 모형은 2단계 모형과 비교하여 예측력에 있어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모델은 82.0% 정확도로 복귀집단과 쉼터집단을 구분할 수 있었고 Nagelkerke R² 값은 .65였다.

표 6
가정복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적합도 검정

집단	구분	model χ^2	step χ^2	df	-2ll	Nagelkerke R ²	집단구별 정확도(%)
남	model 1	12.30	12.30	7	201.18	.10	61.0
	model 2	72.28***	59.97***	18	141.21	.50	74.0
	model 3	82.65***	10.37*	21	130.83	.55	80.5
여	model 1	16.15*	16.15*	7	175.31	.15	67.6
	model 2	84.06***	67.91**	18	107.41	.61	79.1
	model 3	91.57***	7.50	21	99.90	.65	82.0

* $p < .05$, *** $p < .001$

이제 각 독립변인들이 청소년들의 가정복귀 여부를 예측하는 정도를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요인, 학교환경요인이 모두 투입된 모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
가정복귀에 대한 개인, 가정 및 학교환경요인의 로지스틱 분석결과

변수	남자				여자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자이존증감	-.37	.44	.69	.69	-1.11	.58	3.67	.33
우울감	-.19	.38	.25	.82	-.18	.56	.11	.83
충동성	1.04	.52	3.95*	2.83	.49	.61	.64	1.63
공격성	-1.01	.48	4.30*	.37	-1.28	.58	4.89*	.28
지위 비행	-.33	.87	.15	.72	.29	.97	.89	1.33
가행성 비행	-.16	.74	.05	.85	-1.35	.68	3.92*	.36
성 관련 비행	-.86	1.06	.66	.42	-1.11	1.58	.49	.33

변수	남자				여자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가족구조	-2.02	.55	14.37***	.13	-1.92	.62	9.70**	.15
가정경제 수준	.36	.56	.40	1.43	1.20	.59	4.19*	3.32
부모와 대화빈도	.30	.27	1.68	1.35	.99	.40	6.20*	2.70
아버지 애정	.73	.55	1.77	2.07	.70	.47	2.25	2.01
아버지 학대	-.18	.41	.20	.83	-.82	.40	4.27*	.44
아버지 과잉간섭	-.43	.51	.70	.65	-.03	.46	.01	.97
아버지 방임	.88	.38	5.22*	2.40	.33	.50	.44	1.40
어머니 애정	.43	.34	1.65	1.54	.76	.45	2.89	2.13
어머니 학대	-.09	.45	.04	.92	-.02	.43	.01	.98
어머니 과잉간섭	.57	.50	1.30	1.76	.23	.48	.23	1.26
어머니 방임	-.48	.54	.80	.62	.64	.63	1.03	1.89
교우관계	.95	.41	5.50*	2.59	.11	.49	.05	1.12
교사 지각	.55	.30	3.32	1.73	.63	.40	2.55	1.89
학교통제	.18	.32	.30	1.19	.40	.49	.63	1.48

* $p < .05$, ** $p < .01$, *** $p < .001$

각 독립변인들이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 여부를 예측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가족구조와 공격성은 남자청소년들의 가정복귀 가능성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가장 Exp(B) 값이 높은 변인은 가족구조로서 양친가정 출신의 남자청소년들이 가정복귀를 할 가능성은 결손가정 출신의 7.5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격성의 Exp(B)의 값이 .36이고, 이는 공격성이 낮을수록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충동성, 아버지의 방임과 교우관계는 남자청소년들의 가정복귀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충동적인 경향이 있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방임적인 경우 그리고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들의 Exp(B) 값은 각각 2.83과 2.40, 그리고 2.59였다.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족구조와 아버지 학대, 공격성, 그리고 가해성 비행은 여자청소년들의 가정복귀 가능성과 모두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가장 Exp(B) 값이 높은 변인은 가족구조였는데 양친가정 출신일 경우 가정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은 결혼가정 출신의 6.8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대와 공격성, 그리고 가해성 비행의 Exp(B) 값은 각각 .44, .28, .36이고, 이는 아버지가 학대를 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본인의 공격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절도나 금품갈취, 폭력과 같은 가해성 비행경험이 적을수록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여자청소년들의 가정복귀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가정 복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Exp(B) 값은 각각 3.32와 2.70이었다.

V. 논의 및 결론

개인적 요인 중 심리적 특성에서 복귀집단과 쉼터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공격성에서만 나타나 남·여 모두 쉼터집단이 복귀집단보다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Reilly (1977)는 가출청소년들이 더 공격적이고 쉽게 흥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출경험이 있으나 가정에 복귀한 상태인 청소년보다 현재 가출상태인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욕구좌절, 분노, 반항심 등의 감정으로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재엽, 송아영, 2007), 가출청소년들이 가출 이전의 갈등 및 욕구불만을 가출 후의 상황에 전이하려는 행동을 취하고 그 한 예로 가출 이전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 무관심 등을 가출 후 다른 대상에게 전이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는데(Elder, 1994), 앞으로 논의하게 될 쉼터집단의 가정환경요인에 대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면 우울감과 충동성이 여자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자 가출청소년에게서 남자 가출청소년보다 우울성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이종성과 박영숙(200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Yoder et al.(1998)도 여성가출자가 남성가출자보다 가출 후 스트레스를 강화, 확대하고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학대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대자에 대한 내재화된 분노감정을 가출 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Yang & Clum,

1996),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모의 학대와 관련해서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

비행특성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가해성 비행과 성 관련 비행에서 복귀여부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두 쉼터집단 그리고 남자청소년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이해경(2011)은 음주,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출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모두가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어서 지위비행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해성 비행과 성 관련 비행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실태조사에서 폭행, 절도, 이성과의 혼숙, 성관계 및 성인유혹업소 출입과 같은 비행에서 남자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여자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가정환경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여 모두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집단에게서 결손가정 출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가족부(2010)의 실태조사 결과와 Peled, Spiro and Dekel(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를 위해서는 결손가정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가정 지원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가정경제 수준을 살펴보면 쉼터 청소년들이 가정경제 상태를 더 낮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거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상승적인 가출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박영호, 김태익,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Thompson et al.(2003)은 부모의 실직도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는 단순히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정불화와 같은 가정 내의 여러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 다른 가정환경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가정복귀 청소년들이 아버지·어머니 애정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쉼터 청소년들이 아버지·어머니 방임, 아버지의 학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신체적 학대 등이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보건복지가족부, 2008; 정혜경, 안옥희, 2001), 이러한 경향이 본 연구 결과 쉼터 청소년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가족 내 학대가 상승적인 가출과 관련된다는 남미에(199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쉼터 여자청소년집단이 아버지의 학대와 방임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아버지의 학대에 대한 방어능력이 더 약하고 이러한 언어적·신체적 학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겉터에 머무르게 되는 경향성이 더 높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종화 등(2006)이 여자고등학생들의 경우 특히 신체적 학대가 가출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보고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남영옥(2008)은 학대와 방임 등의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자청소년들이 아버지의 학대와 방임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우울 경향도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몇몇 연구들(예: Nebbit et al., 2007)에서 가정에서의 성적 학대를 받는 비율이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신체적 학대에 국한하여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성적 학대경험이 가정복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교환경요인에서는 교우관계, 학교분위기에 대한 지각에서 복귀집단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 Hartos et al.(200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교우관계에서는 성별과 복귀여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서 가정으로 복귀한 남자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요인, 학교환경요인이 남·여 가출청소년의 가정으로의 복귀여부를 예측하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변인은 가족구조 외에도 공격성, 충동성, 아버지의 방임과 교우관계였다. 이들 변인 중 가족구조와 공격성은 남자청소년들의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과 모두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충동성, 아버지의 방임과 교우관계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들 중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은 가족구조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격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충동성이 높을수록 가정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근거로 인과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의 갈등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충동적으로 가출을 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가정복귀 가능성이 더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의 방임 즉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어느 정도 무심한 경우 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가출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후 심한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될 때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남자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의 조언이나 충고를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지나친 관심이나 간섭, 처벌보다는 오히려 방임적인 태도로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것이 이들의 가정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백혜정과 방은령(2009)이 가출청소년들이 귀가를 한 후 엄격한 규제가 가해질 경우 가출했을 당시의 자유로움이 그리워 재가출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교환경 요인 중 가정복귀와 교우관계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현지(2005)와 방은령(2003)은 가출 후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과 친구와 같은 지지체계가 귀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교우관계의 효과가 남자청소년들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에서 비행친구의 압력이나 친구의 일탈이(주동범, 임성택, 2009; 이상무, 남성희, 2012) 청소년가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친구의 지지는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복귀 후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족구조, 가정의 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학대, 부모와의 대화빈도 그리고 개인변인 중 공격성과 가해성 비행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 중 가족구조와 아버지 학대, 공격성과 가해성 비행은 여자청소년들의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과 모두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개인변인 중 가해성 비행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 여자집단이 남자집단보다 더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집단에서는 가정복귀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자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경(2011)의 연구에서 가출경험의 예측력에 있어 본 연구의 가해성 비행에 해당되는 범죄성 비행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상무와 남성희(2012)는 비행경험과 가출빈도의 증가가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여자집단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경험의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의미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화빈도가 가정복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가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한상철(2008)의 연구결과 맥을 같이 한다. 변혜정과 민가영(2007)은 여자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가족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인식하

느냐가 가출 이후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즉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여자청소년들의 경우는 가출이 일주일 이내로 일시적이었으며 가출 이후의 생활에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는데 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가족이라는 자원을 보다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되며 이는 여자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남·여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정으로의 복귀를 예측하는 요인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남·여 청소년 모두 공격성과 가정복귀 가능성이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분노감정을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가정으로의 복귀가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는 분노조절,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미 가출한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결손가정이라는 가족구조의 문제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에 유의한 예측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예방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가출을 예방하고 또 가출을 했다고 해도 이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여자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의 대화 빈도를 높이고 아버지의 학대를 막는 방법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남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방임적 태도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나친 통제를 하지 않고 그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오히려 이들의 가정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여 청소년집단 모두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라 가정으로의 복귀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통해 부모교육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기청소년 개입방안이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가족에

대한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 오승환(2010)의 지적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한 후에 단기적으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게 된 것으로 지각하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재가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Thompson et al.(2004)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미는 가출경험 청소년의 가정복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가출청소년들이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들이 노출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회 이상의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이른바 일회성 가출의 경우는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출기간, 가출 후 생활경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만성적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으로 복귀를 어렵게 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성적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 요인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들의 복귀기간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복귀상태임에도 또 다시 가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현재 쉼터에 머무르고 있지만 과거 가정으로 복귀를 했었거나 혹은 단시일 내에 가정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 이력과 가능성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종단 연구를 통해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과정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였고 가정으로 복귀를 하였지만 자퇴를 한 집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의 특성도 함께 파악함으로써 가정복귀 요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복귀 청소년과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만을 비교한 것에 그쳤고, 이와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이른바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의 실상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이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 중 가정에서의 성적, 신

체적 확대 등으로 인해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homeless youth)의 경우 필연적으로 가출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들을 중·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자립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동기, 홍세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최초 가출발생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에 대한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3), 267-294.
- 김은영, 송민경 (2009). 단기쉼터 이용 가출청소년의 귀가 결정요인에 관한 생존분석. **청소년학연구**, 16(1), 343-370.
- 김재엽, 송아영 (2007).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99-125.
- 남영옥 (2008).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중재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99-218.
- 남미경, 이경남 (2009).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41-54.
- 남미애 (1998). 여성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1), 63-90.
- 문재우 (2012).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38(1), 19-34.
- 박명숙 (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1), 85-106.
- 박민선 (2008). 청소년 가출빈도와 비행 또래수의 변화 추정 및 두 효과 간 인과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2), 111-139.
- 박영호, 김태익 (2002). 가출예측척도에 의한 여중생들의 가출요인분석. **청소년 상담연구**, 10(2), 81-89.
- 방은령 (2003).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모색: 가출경험 대학생과 가출청소년전문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연구** (연구보고 09-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변혜정, 민가영 (2007). 청소년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23(1), 5-37.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0.

- 안창규, 문선화, 전윤식 (1995). **청소년과 학교관리체제**. 서울: 집문당.
- 여성가족부 (2010).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 **장기가출형 가출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방안**. 정책리포트 5호.
- 오승환 (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2(4), 301-324.
- 이상무 (2012). 생태체계요인이 가출유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2), 127-148.
- 이상무, 남성희 (2012). 청소년 가출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 연구**, 19(1), 85-108.
- 이애령 (2004).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성, 박영숙 (2001). 보호시설 가출청소년의 정신병리에 대한 평가와 분류.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192-217.
- 이종화, 김경희, 김희영, 정혜경 (2006). 여자 고등학생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 연구**, 13(3), 161-179.
- 이혜경 (2011). 청소년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379-400.
- 이혜경, 신현숙, 이경성 (2004).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의 개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47-170.
- 이현지 (2005). 가출청소년 재가출방지를 위한 지지체계의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12(3), 283-304.
- 정혜경, 안옥희 (2001). 청소년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 7(4), 483-493.
- 조윤정 (2000). **남자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동범, 임성택 (2009).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이 가출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6(1), 51-72.
- 차명호, 양정국, 정경용 (2010). 청소년의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분석. **소년보호연구**, 15, 165-192.
- 한상철 (2000). 가출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1(2), 29-53.

- 한상철 (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73-298.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봉선, 남미애 (2010). 성매수피해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방안. *청소년복지연구*, 12(1), 1-33.
- 홍세희, 노언경, 박민선 (2010). 청소년 가출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생태 체계적 변인들과의 관련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7(2), 181-201.
- Davey, M., Eaker, D. G., & Walters, L. H. (2003). Resilience processes in adolescents: Personality profiles, self-worth, and cop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347-362.
- Dekel, R., Peled, E., & Spiro, S. E. (2003). Shelters of houseless youth: A follow-up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6, 201-212.
- Elder, G. H. (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Social Psychology Quart*, 57, 4-15.
- Hartos, J. L., Eitel, P., Haynie, D. L., & Simons-Morton, B. G. (2000). Can I take the car? Relations among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 problem-driving practi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3), 352-367.
- Johnson, K. D., Whitbeck, L. B., & Hoyt, D. R. (2005). Predictors of social network composition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8, 231-248.
- McCarthy, M. D., & Thompson, S. J. (2010). Predictors of trauma-related symptoms among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 212-227.
- Milburn, N. G. (2007). Newly homeless youth typically return hom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0(6), 574-576.
- Nebbit, V. E., House, L. E., Thompson, S. J., & Polloi, D. E. (2007). Successful transition of runaway/homeless youth from shelter car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 545-555.
- Peled, E., Spiro, S. E., & Dekel, R. (2003). My home is not my castle: Follow-up

- of residents of shelters for homeless youth.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2, 257-280.
- Reilly, P. P. (1977). What make adolescents girls free from their home?. *Clinical Pediatric*, 17(2), 241-260.
- Robins, R. W., Hendin, H. M., & Trzesniewski, K. H. (2001). Measuring global self-esteem: Construct validation of a single-item measure and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2), 151-161.
- Slesnick, N., & Prestopnik, J. L. (2004). Office versus home-based family therapy for runaway, alcohol abusing adolescents: Examinati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treatment attendanc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22, 3-19.
- Thompson, S. J., Kost, K. A., & Pollio, D. E. (2003). Examining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family reunification for runaway youth: Does ethnicity matter?. *Family Relations*, 52(3), 296-304.
- Thompson, S. J., & Pillai, V. (2006). Determinants of runaway episodes among adolescents using crisis shelter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5, 142-149.
- Thompson, S., Zittel-Palamara, K. M., & Maccio, E. M. (2004). Runaway youth utilizing crisis shelter services: Predictors of presenting problems. *Child & Youth Care Forum*, 33(6), 387-404.
- Yang, B., & Clum, G. A. (1996). Effects of early negative life experiences on cognitive functioning and risk for suicide: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177-195.
- Yoder, K. A., Hoyt, D. R., & Whitbeck, L. B. (1998). Suicidal behavior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753-771.

ABSTRACT

The factors affecting runaway adolescents and their decisions to return home

Kim, Hyeon* · Jeong, Jeong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ose factors that are essential in the decisions of runaway adolescents to return home. Two research strategies were adopted. (1)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runaway adolescents who returned home and their peers who remained in shelters were analyzed. (2) Those variables which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rediction of the young people returning home were then identified.

A total of 541 adolescents from 42 shelters and 12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who had experienced running away more than twice were included in the study sample, among them 280 participants returning home and 261 participants remaining in shelters.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a questionnaire which covered individual, home environment, and school environmental factors.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through two-way ANOVA, χ^2 -test,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from the two-way ANOVA and χ^2 -test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turnees and sheltered adolescents in terms of aggressiveness, delinquency, family structure, economic status, certain parenting attitudes (father and mother's affection and negligence, father's abuse), and peer relationships. There were also gender differences in terms of depression, impulsiveness, and delinquency.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 Director, Mokpo Yudal Female Adolescents' Short-Term Shelter

Being from a broken home and aggressiveness were hindering factors for both male and female runaway adolescents, however,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lso brought out some substantive gender differences. For females, fathers' abuse and delinquency were hindering factors while economic status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were facilitating factors. However for male runaway adolescents, fathers' negligence and peer relationships promoted their returning home. Overall,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indicated that home environmental factors were the strongest predictors for runaway adolescents' returning home.

Key Words : runaway adolescents, returning home factors, gender differences

투고일 : 2014. 3. 4, 심사일 : 2014. 5. 20, 심사완료일 : 2014. 5. 28